박성수 신임 광주전남연구원장 인터뷰

"3개월내 시·도 상생 마스터플랜 내놓겠다"

나주에 임시청사 마련 통합 시기 앞당길 것

지역경쟁력 발굴·생산 '싱크탱크' 역할에 충실

광주전남연구원이 이른 시일 내에 나주에 임시청사를 마련, 새둥지를 틀 예정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신청사를 건립하고 2017년 이후 통합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지난 2007년 이후 분리 이후 8년 이상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이질감이 커진 만큼 서둘러 물리적 통합에 나서겠다는 박성수 신임 광주전남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또 박 신임 원장은 연구원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3개월 내에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여곡절 끝에 원장으로 선임됐는데.

▲지난해 통합 과정, 허성관 초대 원장의 중도 사퇴 등을 지켜보고 또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상생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느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는데, 원장 취임이 그 전환점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역이 기대하는 연구원은.

▲민선 6기 들어 상생의 기치를 올렸는데, 이는 시도민의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발전의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원의 통합은 상생의 제1과제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당기간 표류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하는데, 우선 지역의 '싱크탱크'라는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려고 한다. 또 시·도의 정책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선도적으로 이끄는데 주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발굴하고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원장으로서 첫 임무는.

▲지금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서류상 통합한 것은 맞지만 물리적인 통합은 물론 화학적인 통합은 아직 멀었다. '한 가족 두 지붕'이라는 상황을 서둘러 타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대면 접촉이 많아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그것이 곧 상생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조직의 안정 차원에서라도, 물리적 통합 시기를 앞당겨 조만간에 나주에 임시청사를 만들고 광주전남연구원을 한 지붕 아래 두도록 하겠다.

-시·도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연구원의 위상이나 역할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해야하는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것 같다. 연구인력은 실력과 긍지를 높이고, 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써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광주와 전남은 그동안 정부 공모사업에서는 경쟁상대가 됐고, 공항 문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한 논의를 이끌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대중국 관계, 관광문화벨트, 광주의 자동차산업, 전남의 에너지산업 등 서로 상생하면 분명 '파이'가 커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연구원 강화 방안은.

▲서두를 일은 아니다. 다만 시도민의 기대가 있으니 취임 3개월 안에는 상생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생각이다.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분야의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도시재생, 농수산, 해양, 인적 자원 관리 등의 분야의 인력이 있었으면 한다. 이는 연구원 내부 논의를 좀 더 한 뒤 판단하겠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윤장현 시장 "현안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지시 외면 공직자 용납 안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12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주문하고, 시 방침과 지시를 외면하는 공직자들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긴장감, 절실함을 갖고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자동차 100만대 사업과 관련해 그는 "밤을 새워서라도 타당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세계 특급호텔 건립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주변 상인과의 상생방안을 찾고, 롯데마트 월드컵점 불법 재임대 논란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 계획을 세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윤 시장은 또 "모든 일의 바탕에는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방침을 어기고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인사도 하겠다"고 공직기강을 강조했다.

윤 시장은 이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부서간 기업·단체 간 소통과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의원 해외 나들이 더 엄격해진다

계획서 출국 21일 전까지, 보고서 귀국 30일내 제출

전남도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비회기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도의회 예산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앞으로 계획서를 출국 21일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귀국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결과보고서를 즉시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의회 자료실에 배치하도록 했다.

12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제300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가 최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12일 8박9일 일정으로 스페인, 포루투갈 등 유럽을 방문하는 기획사회위원회 소속 12명 의원과 13일 9박11일 일정으로 브라질, 파라과이 등 남미를 찾는 건설소방위위원회 소속 15명 의원들에게 첫 적용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과거 전남도의회의 '공무여행에 관한 규칙'을 수정·보완해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공무여행'을 '공무국외활동'으로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전남도의회는 도의원의 자질 향상과 해외 선진지 탐방 등을 위해 연간 1인당 250만원씩 모두 1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여행 성격이 강했던 과거 의원들의 해외 출국이 '연수 및 사례 연구'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조례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등 6가지로 제한했다. 또 기본원칙을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는 안될 것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의원들의 해외여행을 방지하면서 의회 활동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고사리손으로 딴 지산딸기 12일 광주시 북구 용강동 딸기농장에서 열린 '빛찬들 지산딸기 체험학습'에 참가한 용두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수확한 딸기를 내보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친환경 토경재배로 수확한 지산딸기 가격은 2㎏ 기준 한상자당 3만~3만5000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방정가

주경님 시의원 풍암유통단지~포충사 도로 개통 역할

광주시의회는 12일 풍암유통단지와 포충사를 잇는 도로 개통과 관련, 행정자치위 소속 주경님(서구 4)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총길이 2.6㎞·너비 12m인 이 구간 도로는 지난 2003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이후 12년 만인 지난달 30일 개통됐다. 총 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였지만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졌던 것이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뒤 시 관계자를 연이어 만나 설득 끝에 예산을 확보, 해당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번 구간 개통으로 해당 지역 교통흐름이 상당부분 개선되면서 주민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시의회 전현직 의원 등 80명 더민주 탈당

나주시의회 전현직 의원 등 나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 80명이 12일 더민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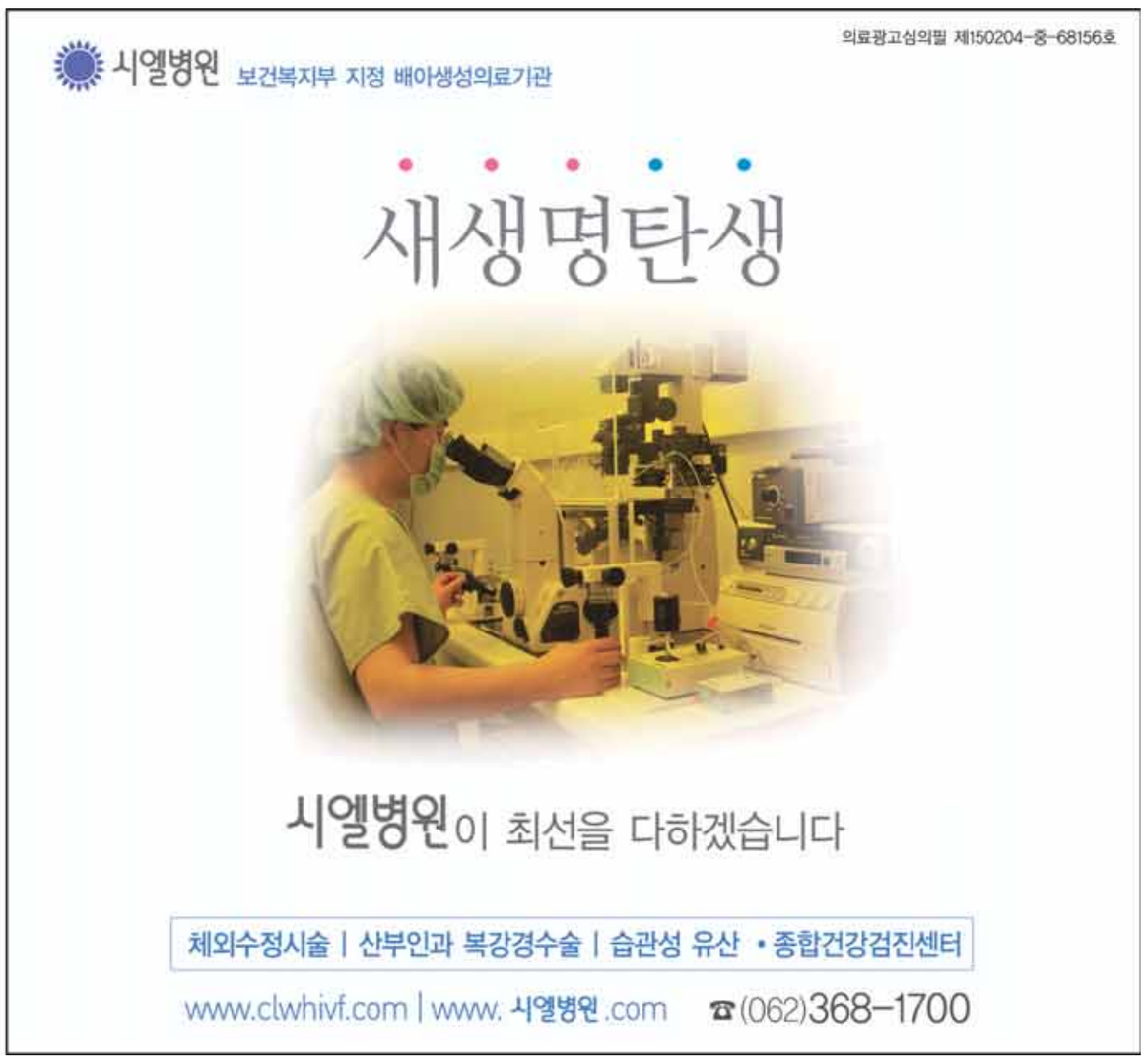
이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패권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더민주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면서 "나주의 미래를 위해선 새로운 정치세력과 연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역 전통 야당 정치인들의 더민주 탈당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더민주 소속 당직자 및 당원들의 탈당 행렬도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여정을 떠난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일 더민주 전남도당에 탈당계를 공식 제출했었다.

박대현 동구의원 매니페스토 우수의원 선정

광주시 동구의회 박대현 구의원이 11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박 구의원은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조례제정 및 공약이행, 주요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과 소통에 힘쓴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 구의원은 "앞으로도 신뢰받은 의원상 정립과 실천가능한 공약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